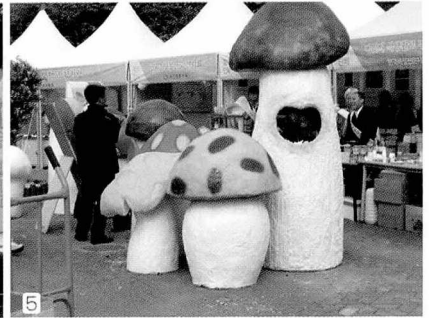




- 1 본회 부스에 모여든 인파
- 2 1,111인분 비빔밥과 함께 기념식
- 3 쌀 전시.
- 4 초대가수의 기념행사 무대
- 5 버섯자조금위원회의 대형 버섯 국내에서 자생하는 다양한 조형물 전시도 이루어졌다.
- 6 오리고기 시식중인 임상규 농림부 장관과 권오을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12회 농업인의 날

“생명가득 푸른 농촌, 희망가득 미래농업”

제12회 농업인의 날

제12회 농업인의 날 행사가 ‘생명가득 푸른농촌, 희망가득 미래농업’을 주제로 지난 9일(금)부터 11일(일)까지 3일간 올림픽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9일(금)에는 임상규 농림부장관, 권오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및 본회 김만섭 회장을 비롯한 각 농축산단체장이 참관한 가운데 기념식을 시작으로 제12회 농업인의 날 개최를 알렸다.

임상규 농림부장관은 기념식 인사말을 통해 “나라 안팎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을 위해 정부당국도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인사들은 테잎 커팅식과 함께 1천111인분 비빔밥을 야외광장에 준비, 국산 농산물로 만든 비빔밥을 참관객들에게 시식하는 이벤트를 가졌다.

이번 농업인의 날 행사는 다채로운 공연과 부대행사가 펼쳐져 기념식장 앞 야외광장에서는 21개 농민단체가 내고향 특산물, 축산홍보관, 내고향 지키미, e비즈니스장터, 체험홍보관, 지역농업클러스터관, 내고향 먹을거리장터 등으로 꾸민 ‘농촌사랑 한마당’ 잔치도 3일간 운영되어 도시민들에게 농업·농촌을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줬다.

한편 본회에서는 통오리 훈제, 슬라이스육, 양념육 등을 회원사에서 원가협찬 받아 오리 브랜드 제품 전시·시식·판매를 연계하는 행사를 가졌다.

또한 이와 함께 오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담긴 소비홍보 영상물 상영과 함께 판넬전시, 월간 오리마을·오리요리 책자·기념품(미니손톱깎이) 등을 배포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국내 우수 계열업체의 고품질 오리고기 제품을 구경하고 맛보고 거의 원가에 구입할 수 있는 논스톱(Nonstop)시스템은 굉장히 편리하고 실용적이었다며 많은 소비자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여기에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축하공연을 비롯해 농림부 국악방송의 ‘풍물경연대회’, 농촌학교 초청 락페스티벌, 농협밴드 ‘음하나로’의 축하공연, 안성농협 지역문화센터 ‘농촌사랑예술단’의 벨리댄스공연 등 농림부·유관기관 직장 동아리 회원의 축하공연도 이어져 행사를 풍성하게 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각 지역별로 제12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풍성한 행사가 펼쳐져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을 주고, 도시민에게는 국민건강과 생명산업인 농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심어주는데 일조했다.

그러나 유동인구가 많은 잠실 올림픽 경기장 인근이었던 것과 행사가 주말에 이루어진 것을

고려해 볼 때 참관객이 상대적으로 적어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2009년에 개최되는 농업인의 날에는 폭넓은 홍보와 안내로 일반 소비자들과 생산자가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

